

호서대 재학생들, '동물보건사 임상실습 지침서' 출간

송고시간 | 2025-01-23 10:02



김충현 지도교수와 집필 학생들

[호서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아산=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호서대는 23일 동물보건복지학과 재학생들이 동물보건사가 되기 위한 필수 과정인 동물병원 현장 실습을 혁신적으로 재정립해 직접 집필한 '동물보건사 임상실습 지침서'가 출간됐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기존의 동물병원 실무 관련 도서와 간호학 실습 매뉴얼을 참고하며, 실습 과정에서 발생한 시행착오를 반영해 현장감 넘치고 실용적인 내용을 자신의 실습 경험을 바탕으로 생생하게 담아냈다.

지침서의 가장 큰 차별점은 탄탄한 동영상 콘텐츠로 개 채혈 보정법, 알약 투여 보정법 등 동물보건사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25개 주요 실습 내용을 QR 코드를 통해 유튜브와 연동시켰다.

지침서를 기획한 김충현 동물보건복지학과 교수는 "기존 교재들이 공급자인 교수의 입장에서 집필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호서대 동물보건복지학과 학생들의 실습 결과가 매우 훌륭해 열정 있는 몇몇 학생들에게 이 프로젝트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학생들은 '기둥'이라는 프로젝트 그룹을 결성하고, 동영상 제작의 어려움은 문화영상학부 진승현 교수와 학생들의 도움으로 해결했다.

yej@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5/01/23 10:02 송고

본 기사는 연합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Yonhapnews. All rights reserved.